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

(베드로전서 1:17~25)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
'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을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의 정착민 심판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대한 정착민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Before I go to sleep)"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틴은 뇌장애로 인해 매일 아침 과거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남편의 품에서 일어나면서도 남편을 처음 보는 남자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남편 벤은 이러한 아내에게 매일 아침 자신이 남편임을 설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는 버릇이 있는 아내를 위해 화장실 벽에 아내와 찍은 사진을 잔뜩 붙여두었고, 그리고 사진 속 남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

려주는 메모들도 붙여두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이곳이 자신의 집이며 또 자신의 나이가 40살이라는 것까지도 반복해서 공부해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틴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자신에 증세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잊는 증세를 가지게 된 것은 10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차 부부로 살아가는 중임도 배웁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면 내쉬 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내쉬 박사는 희한하게도 집안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서 어디를 찾아서 비디오카메라를 찾고 그 내용을 보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동영상에는 어젯밤 잠들기 전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내쉬 박사를 만나 치료를 받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숨겨져 있던 충격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이 10년 전 신문 기사를 발견하는데 그 기사에는 자신이 폭행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으며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남편 벤의 행세를 하는 남자는 사실 과거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마이크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마이크가 크리스틴을 폭행하여 뇌장애를 갖게 해놓고 남편의 행세를 하면서 요양원에서 빼내왔던 것입니다.

본문과 연관하여 이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은 바로 관계는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14년간을 부부로 살았다고 하여도 기억을 상실하면 남편도 모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40~50년을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잠들기 전에 부부였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여전히 부부로 기억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면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관관계는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심해지면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자녀까지도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 전체가 기억과 연관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경 1cm 길이 5cm로 새끼손가락이 굽어져 있는 것 같이 생긴 두 개의 해마라는 기관에 의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기관인 해마가 잘 작동해야만 기억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자신이 평생을 해온 일에 대해서조차 무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곧 기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한편 이 기억은 구원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생각을 종

합해보면 나그네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정착민 심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2장 11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나그네 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입니다. 또 나그네의 특징은 머무는 곳에 마음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곧 실제 외모나 직업은 물론이고 목사든 평신도든 교회 내에서의 직분조차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나그네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그네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나그네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나그네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구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정착민의 마음을 가진 결과 정착민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산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그네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상통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의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한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착민의 마음을 유지하며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그네 의식은 세상에 대한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아내나 남편에게 마음이 정착하지 말아야 합니

다. 나그네는 특정한 장소에 몸이 머물지 않는 자들입니다. 몸만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그네의 마음을 갖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고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면 이제 나그네의 삶은 끝나고 정착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설령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조차도 스쳐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그들에게 마음을 정착시킨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정착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마치 기억에 대해 다루는 현대 의학서적 같습니다. 24~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기억에 의존하여 이 세상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팔도를 유랑한 김삿갓이 떠오릅니다. 다만 김삿갓은 몸으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마음은 결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정착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이라는 범주에 정착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기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의 정착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기억력은 새끼손가락 같이 생긴 해마라는 기관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고장이 나면 인격이라는 의식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년간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50년간 같이 살며 웃고 울고 아이들을 낳고 길렀던 모든 삶의 깊이가 기억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머리를 다쳐서 해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50년간 삶의 무게와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어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본문에서는 육체를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썩게 되면 당연히 뇌 속에 해마와 함께 기억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혼뿐입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마음은 잠들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매일 기억을 잃어버리는 크리스틴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인 건강 장수 돈 인격 권력 등도 뇌 속에 해마가 없어지면 돈이 산처럼 쌓여있어도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며 돈이 의미하는 바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두 개의 해마에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고 이어서 25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본문 3~4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말씀은 육체를 마른 풀과 떨어질 꽃과 같다고 비유한 말씀과 대비됩니다. 이 유업은 곧 복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의 동선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에 마음을 드림으로써 기억에 의존하는 육체의 세계를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들만이 세상에 대해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뇌 속의 해마에서 만들어지는 기억들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해마의 기억에 의존해서 세상에 마음을 정착시키는 것은 '썩을 소망'입니다. 기억에 의존함이 썩을 소망인 이유는 육체가 수명이 다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치매환자는 자아의식에 문제를 느낍니다. 자아의식이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 의해 규정됩니다.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를 파악할 수 없기에 나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을 기억해야만 부모로써의 자아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배우자를 기억해야 남편이나 아내로써의 자아의식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나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필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관계를 마른 풀과 떨어질 꽃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대기업을 일궈낸 회장님이 뇌 속의 해마에 이상이 생겨서 기억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평생 힘들여 일구어낸 대기업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엄청난 꿈과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기업은 막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뇌 속에 있는 해마의 기억에 의존해 있었기에, 해마가 손상되자 삶의 의미 또한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회장님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육체가 없으니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서 마주한 대상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

나님은 각종 보석 빛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비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산 소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산 소망되시는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고 오직 해마의 기억에 의존하여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할 수 없는 대기업에 마음을 준 삶의 행실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세상에 대한 나그네의 신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 정착민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살아있을 동안에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를 예로 들어봅니다. 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이 큰 자랑입니다. 이 기억에 의존하여 자녀와 관계하며 마음을 자녀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자 이 기억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시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자녀에게 마음을 다 주느라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육체가 없으니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의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은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기억이란 마른 풀이고 떨어질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에 의존하여 세상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온 결과가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살아있는 동안 왜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2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정착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의미는 부자가 기억할 능력이 있어서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때에 다섯 형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27~28절에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부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죽고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보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고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임을 심판받는다면 기억에 의존해서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기억에 의존하여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인간관계나 세상의 가치들에 마음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이 썩어질 소망에 불과하며 풀이 마르는 것이고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왜 이런 식으로 허락하셨는지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팔십 평생을 살면서 이룬 모든 일들이 허무한 것이라면 왜 이런 육체를 주셨을까요?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이 대제국을 이루었다지만 죽어서는 그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에 대제국을 이뤘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일에 마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해 안달복달했는지 후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앞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 꿈꿨던 일들은 모두 망각상태에 빠져버리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바랐을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작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보잘 것 없는 해마의 기억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삶이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도에 남녀가 갇혀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이들이 부부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이고 선택적인 관계인데 무인도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는 사랑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사랑이 확인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기억을 통해 살게 하신 이유도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든 돈이든 지위든 업적이든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대상들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해서 사랑할 기회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세상의 가치의 대표로 삼아 하나님과 비교하며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기억에 의존하게 하고 세상의 정착민이 되도록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써 예수님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배우자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만큼 마음이 정착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또 자녀, 부모님, 돈, 건강, 승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느낀다면 마음이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복음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는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기억에 의존하는 세상의 관계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마음을 잡아끄는 세상의 대상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중에서 사랑할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기억에 의존하여 관계를 맺는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마른 풀과 같고 떨어질 꽃과 같은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걸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동선이 곧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유지시켜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본문 10~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를 때에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 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 승천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산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면 이 땅에 대해서는 정착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과 기쁨거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해 정착할 마음이 없을 때에 참 사랑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마음이 정착한다는 것은 기억에 의존한 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에 의존한 관계는 결국 마른 풀과 떨어질 꽃과 같은 관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진정한 사랑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설령 자녀에 대한 사랑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빨대를 꽂고 흡혈귀처럼 그들의 생명을 빨아먹는 귀신이 빙의된 상태이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나그네가 되지 않는다면 참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틴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학습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행해야 될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억에 의존하여 관계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매일 하늘로 거듭나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으로 결정된 자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해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곧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조차 항상 초면인 것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이 보냄 받은 자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도 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해 나그네 되는 것이 유일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며 거짓 사랑을 중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관계에서는 평생을 부부로 살아도 한 번도 진실 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뜻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며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삶은 마른 풀과 같고 떨어질 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기억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는 동안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삶의 기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산 소망을 가진 것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썩을 소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사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보냈다면 그 삶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

다.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에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썩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흡혈귀와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달라붙어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자녀에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상에서의 기억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 썩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의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불타는 곳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정말로 뜨거운 곳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태우는 후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구원론과 정착민 심판론이 드러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마른 풀과 떨어질 꽃과 같은 기억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있을 때에도 거짓된 사랑을 할 수 밖에 없고 죽어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름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 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기억에 의존해 세상과 관계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으로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기억의 의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거짓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며 산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후회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억에

의존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분통이 터지며 억울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억에 의존하는 정착민으로의 의식을 끝내고,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이 산 소망이 되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거짓 사랑을 극복하여 참 사랑을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풀 같고 떨어지는 꽃 같은 기억에 의존하는 정착민의 의식을 버리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기를 바란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